

경제

■ ‘백색가전’ 광주 이전 대우일렉 가보니...

3분마다 냉장고 1대... ‘가전명가’ 재건

생산설비 이전 완료 내달부터 본격 양산

연매출 8천억... 고용·하청 연관효과 막대

“TV, 에어컨, 청소기 다 털고 냉장고와 세탁기만 들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몸놀림이 가벼워진만큼 빠른 속도로 ‘가전명가’를 재건하겠습니다.”

23일 오전 11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내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소형냉장고 생산라인, 대우일렉은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사업을 줄이고 직원도 줄였지만 광주공장은 활기가 넘쳐났다. 공장 가득 직원들은 분주했고, 인천서 내려온 파트장은 지휘하느라 여념이 없다. 400m 컨베이어벨트에 늘어선 40명의 직원들은 3분에 한 대 꼴(1시간당 200대)로 소형냉장고를 뽑아냈다.

대우일렉은 지난해 상반기에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TV 등 영상과 에어컨, 청소기, 모터 등 4개 사업부를 매각하고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구조조정을 단행, 백색가전 전문업체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장이 광주로 옮겨왔다. 지난해 말 인천공장을 폐쇄하고 소형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압축기 생산 설비를 모두 광주로 이전했다. 그리고 기적을 일궈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지난해 410억원의 영업이익 기록, 1년(32억원) 만에 영업이익을 13배로 키워낸 것이다.

대우일렉은 중국으로 이전한 전자레인저 부지에 소형냉장고 및 김치냉

장고 생산 설비를, 대우모터 자리엔 압축기 설비를 옮겨와 라인 재편 작업을 거의 마쳤다. 지난 17일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공장 증축 사용승인을 받아 인천공장에서 이전한 소형냉장고 생산 라인에 대해 시운전을 겸한 양산체제에 돌입했다.

광주관리지원팀 이정범 팀장은 “생산라인 재편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면서 “설비 이전을 마치고 현재 시운전을 겸해 시험 양산을 하면서 라인의 밸런스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부터는 본격 양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일렉은 라인 이전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인력 투자도 이어졌다. 지난해 말 인천에서 250여명이 광주에 내려왔고, 200여명을 새로 총원했다. 광주공장에서만 1천500여명의 직원들이 연 매출 8천억원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협력업체 20여곳도 1천여명도 내려올 예정이다. 이미 상당수 협력업체들이 광주시, 전남도와 이전 협약을 맺고 설비이전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최소한 3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천공장의 광주 이전 작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광주공장은 주문량을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다. 지난해 설비에 특근했다. 매일 작업과 주말 특근은 다반사다. 이번 주말에도



23일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대우일렉트로닉스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냉장고를 조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특근이 예약돼 있다. 이 팀장은 “‘탱크주’로 상징되는 대우의 백색가전은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 생산 노하우,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이 광주공장에 집적돼 있다”며 “광주에서 대우의 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금융권 산업대출 ‘신경 안쓰다’

작년 기업부문 대출금 1,400억 급감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지난해 기업부문에 대한 산업대출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09년 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 및 특징’에 따르면 2009년 중 광주·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총예신은 1조3천925억원이 증가했지만 전년(1조3천587억6천600만)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예금은행의 총 대출금 가운데 기업부문에 대한 산업대출금은 2008년 2조7천400억원이었으나, 19조9천300억원으로 1천400억원 감소했다.

국제적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기업들의 신규 대출 수요가 줄어들었다. 은행들이 신용위험에 대비해 위험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건설업(+5천24억원)→8천64억원) 대출은 건설경기 침체 지속으로 감소로 전환했고 제조업(+8천149억원)→2천887억원) 및 서비스업(+4천624억원)→3천863억원) 등은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운전자금대출(-6천600억원)은 건설업 대출이 많이 줄면서 감소로 전환했으며 전체 산업대출 잔

액에서 운전자금 대출 비중은 71.2%로 전년(73.7%)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시설자금대출(+4천657억원)은 자동차,트레일러 및 공공행정·기타 서비스업은 호조를 보였으나 다른 대부분의 업종은 대출이 부진해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3천770억원)은 건설업(-7천940억원)과 제조업(+302억원)을 중심으로 전년(+8천561억원)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고 전남지역(+2천366억원)은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의 대출이 줄어 전년(+9천257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윤영기기자 yunfoot@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타협점 찾나

사측 2차 수정안 제시에 노조도 26일 자체안 내기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노사 모두 서로 양보안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일단합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23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제7차 본교섭에서 178명 분업에의치 신청으로 노무비 절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삭감하기로 했던 상여금 300%를 200%로 줄이는 추가 수정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사측은 지난 11일 협상에서 현재 800%인 상여금을 500%로 300%를 깎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사측은 이 수정안마저 노조가 거부한다면 다음달 3일 1천199명에 대해 정리하고 통보를 하고 4월2일 해고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날 8차 본교섭에서 “인원구조조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자”며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노조는 26일 본교섭에서 노조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 철회를 주장하면서도 “사측의 입장을 고려해 접근 가능한 사안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6일로 예정된 제9차 본교섭에서 내용을 노조 제시안에 따라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인지 주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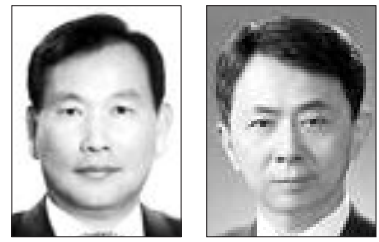
여천NCC(주) 대표이사 홍동욱씨

여수열병합발전(주) 대표이사 조창호씨

한화그룹은 경영기획실 재무·투자담당 홍동욱 부사장을 내달 1일자로 여천NCC(주) 대표이사로 승진·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여천NCC(주) 조창호 대표이사는 신설 에너지법인인 여수열병합발전(주), 군산열병합발전(주)의 겸직 대표이사로 전보 발령한다.

신임 홍 대표는 한화석유화학의 전신인 다우케미컬과 한화종합화학, ㈜한화물류서비스 등에서 기획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며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를 지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홍동욱 사장〉 〈조창호 사장〉

신임 조 대표는 한화종합화학, 한화석유화학 등에서 기획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며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를 지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기아 로체 후속

‘K5’?

기아자동차가 로체의 후속 모델로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신차 ‘TF(프로젝트명)’의 렌더링(그래픽제작과정) 이미지를 공개함에 따라 실제 출시될 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K7에 이어 ‘K5’ 라인업을 완성하기 위해 로체의 후속 모델명을 ‘K5’로 정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어 모델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23일 이에 대해 “모델명의 경우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로체로 갈지, K5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Financial data table showing interest rates for various products like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and 금리 (국고채 3년).

Advertisement for '창업, 집에서 3일이면 끝' (Start a business, finish in 3 days at home) featuring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Online home-based business system).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Sang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원지구 롯데마트앞 벨리스타워빌딩' (Suwon Jigu Lotte Mart Front Bellis Tower Building) listing various unit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Economic Specialist Asset Korea)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